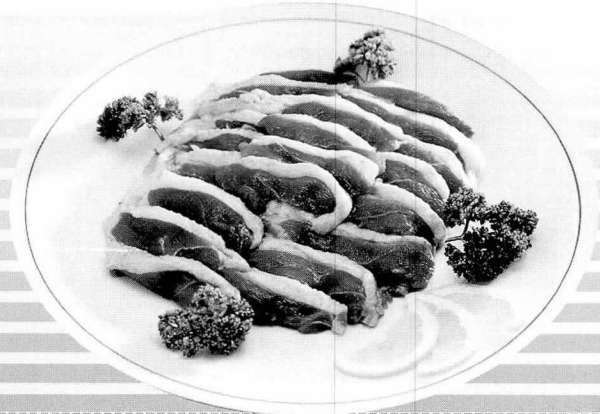


페킨(Pekin)오리의 사육가이드북



※ 이 자료는 프랑스 오리 육종전문회사 「그리모드(Grimaud)」제공임

건강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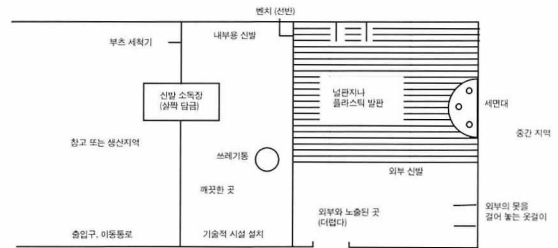
이것의 목적은 사육장 출입으로 인한 병원균 오염을 막음으로써 외부적 감염을 방지하는 데 있다.

▶ 외부로의 보호

- 울타리 사육장
- 살균된 깨끗한 건물 바닥면
- 새와 쥐로부터 안전한 건물
- 다른 가금류와 합사 금지
- 사료가 같은 공간에 없어야 하고, 운송트럭도 보호된 구역으로 운송
- 물청소를 위한 콘크리트 구역

▶ 사람으로부터의 보호

사람은 대부분의 병원균의 매개체이다. 항상 적합하게 이용되는 외부로부터 격리 되어 오염을 방지하는 현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따라야 한다.



이 곳을 입장하려면 오염됐을 수 있는 겉옷과 신발을 외부에서 벗고 손을 씻은 뒤 깨끗한 작업복을 입는다. 이 곳은 항상 깨끗해야 하며 정기적인 살균이 필요하다.

▶ 직접적인 보호

- 치료(예방)는 가장 어린 오리들부터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순으로 한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에 걸린 개체들을 가장 마지막에 한다.
- 적극적인 보호 통제는 쥐나 곤충들에 대비하여 체계적이어야 한다.
- 죽은 오리는 깨끗한 지역에 들이지 말고 밀폐시켜 냉장보관 한다.
- 부화실, 사료저장실, 사료 공급장치, 음수대나 파이프, 물 분사기 등의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청소, 살균, 배출

이 일련의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육장 건물에 다른 생물을 받아들이기 적합한 위생수준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작업들은 논리적·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각각의 작업들은 물세탁을 동반한다. 유기물이 있는 곳에는 소독약을 쓰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업 순서

- 분을 제거한 후 바로 살충제를 뿌린다.
 - 분해 가능한 모든 장비들은 분해하여 살균, 청소한다.
 - 건물 내 모든 유기물을 제거한다.
 - 건물과 장비를 물 분사기로 청소한다.
 - 스프레이로 벽과 바닥을 청소한다.
- ⇒ 위생벽을 설치 (현관, 옷가지 등과 분리시키기 위해)

시작하기 전에 위생상태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 이 시간은 건물이 확실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료 창고를 살균하며, 쥐약을 놓는다.

▶새 오리들을 들이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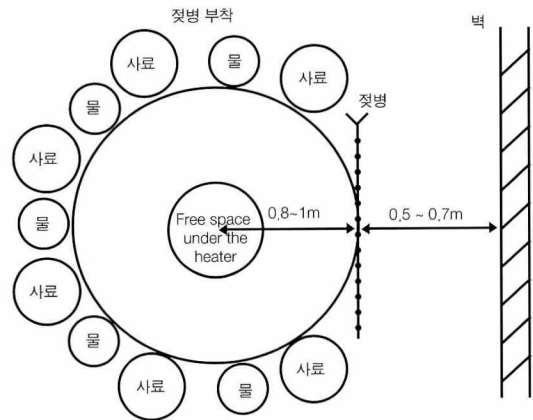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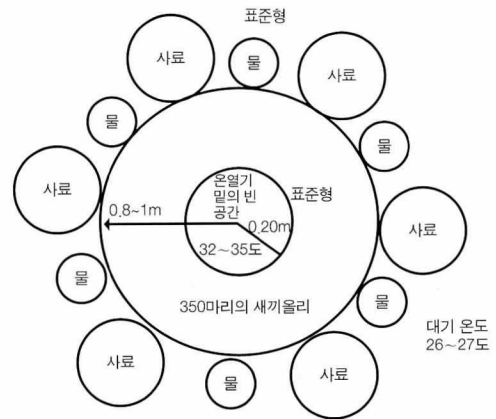
- 깨끗하게 살균, 청소한 장비를 재설치 하거나,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은 버린다.
- 연기 소독으로 살균한다.

▶요점

- 반드시 통풍구를 설치하고, 현관, 입구, 창고 등이 오염되었다면 격리시킨다.

- 반드시 공식 승인이 있는 살충제를 사용하며, 정확한 용법, 사용온도와 필요량 (1L/4m²)을 써야 한다.
- 물청소 시에는 박테리아가 없는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시설 설치의 개요도



밀도

일반 오리들의 높은 운동성을 봤을 때 오리의 사육 밀도는 높지 않아야 한다.

밀도는 사육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쪼 더미 위에는 1제곱 미터당 생육 오리 20kg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합판 위에서는 1m²당 40kg이하로 유지해 준다. 밀도는 다음과 같이 맞추어라 : 다음의 밀도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오리의 나이	짚	합판
6주차	6/m ²	12/m ²
7주차	5.5/m ²	11/m ²
8주차	5/m ²	10/m ²

이 규격은 장비가 완벽하고, 사육장은 완벽히 암컷 50%, 수컷 50%로 사육될 경우로 가정한다. 일반적인 오리들은 500마리씩 우리에 넣는다. (각 우리당 2개의 온열기 필요) 사육장은 오리를 기르는 동안 계속 있어야 한다.

온도와 환기

히터 1개당 300 ~ 400마리의 새끼오리

일 수	온도 (참조 1)	
	온열기 아래	대기온도
1 ~ 3	32 ~ 35°C	27°C
4 ~ 7	30 ~ 32°C	23°C
7 ~ 14	25 ~ 30°C	20°C
14 ~ 21	20 ~ 22°C	18°C
21이상	계절에 따라 다르다(참조 2)	15°C

(참조 1) 오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참조 2) 온열기를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환기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환풍기를 써서 건강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암모니아 수치는 10ppm이하) 특히 일반 오리들은 나쁜 통풍에 매우 민감하다.

동적인 환풍기는 1~8m³/시간/생체중 kg 마다 하

나씩 설치해 준다.

조경 계획

나이	밝기	지속량 (참조 1)
첫째 주	60~80 lux	하루 24시간
둘째, 셋째 주	30 lux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점차적으로 줄인다. (참조 2)
넷째 주 이상	10 lux	12시간은 인공 빛 또는 태양빛 (참조 3)을 쬐어준다. 12시간 동안은 어둡게 해준다. (참조 2)

(참조 1) 일조량 공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빛을 주는 기간과 어둠간의 빛의 강도차이는 명확해야 한다.

(참조 2) 어둡게 해주는 기간에는 야간등을 켜준다.

(참조 3) 햇별이 잘 드는 사육장의 경우

부리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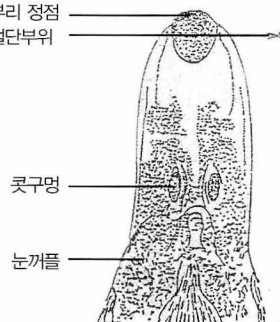
부리의 윗부분을 잘라주는 수술은 서로간에 쪼아 대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리 자르기는 반드시 매우 예리한 수술용 가위나 깨끗하게 날이 선 일반 가로 잘라주어 부리가 깔끔하게 절단되도록 한다.

부리자르기의 표준 예 : 10에서 15일 사이의 오리

부리 정점
절단부위

의 부리를 자르는 것이 좋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